

全南地方의 先史文化

—최근 發掘成果를 中心으로—

李榮文*

一.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全南地方은 북으로 노령산맥이, 동으로 소백산맥이 에워싸고 있으며, 西·南으로는 바다에 각각 접해 있다. 이러한 지형학적인 면에서 보면 북과 동쪽이 산맥으로 가로 막혀 있어 육로를 통한 문화수용보다는 오히려 해안을 통한 문화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타지역과는 달리 개방성과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全南地方에서의 考古學的인 調查 研究는 일제시 日人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것들은 주로 羅州 潘南一帶의 甕棺墓(독무덤)에 대한 것이었다.¹⁾ 그 후로는 1960年代에 와서야 韓國人에 의해 支石墓(고인

* 全南大學校 博物館 學藝研究士

- 1) 전남지방에서의 考古學的인 調查는 1917年 谷井齊一과 1938年 有光敎一에 의해 시작되었다. 『大正6年度 古蹟調查報告書』 1920年, 『昭和13年度 古蹟調查報告』 1940年.
- 2) 支石墓는 1965年에 谷城 拱北里와 昇州 廣川里가, 1967年에 靈岩 長山里와 康津 支石里의 支石墓가 각각 발굴되었다. 金載元·尹武炳 『韓國支石墓研究』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六冊 1967. 甕棺墓는 靈岩 內洞里에서 1960年(金元龍)과 1967年(蔡秉瑞)에, 그리고 光山 新昌里가 1963年(金元龍)에 각각 발굴조사되었다.
 - ① 金元龍, 「靈岩郡 內洞里 甕棺墓」 『鬱陵島』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四冊 1963.
 - ② 黃龍軍, 『靈岩 內洞里 甕棺墓 調查報告』 慶熙大學校 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二冊 1974.
 - ③ 金元龍, 『新昌里 甕棺墓地』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一冊 1964.

돌)와 甕棺墓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²⁾ 1970年代에는 全南大學校博物館에 의해 靑銅器時代 住居址와 支石墓 등 先史遺蹟이 조사되면서³⁾ 全南考古學 研究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0年代에 와서는 全南大學校博物館을 비롯하여 國立光州博物館, 木浦大學博物館에서 先史遺蹟과 貝塚, 甕棺墓, 石室墳 등 선사·고대의 유적들이 매년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全南考古學研究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表 1참고).⁴⁾ 특히 '86년부터 '89년까지 실시된 보성강유역인 住岩담水沒地域 發掘調査는 舊石器遺蹟의 확인과 靑銅器時代에서 百濟時代에 걸친 集團住居址, 支石墓와 琵琶形銅劍과의 관계 등 全南考古學을 재조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韓國考古學 研究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⁵⁾ 이 시기에는 무덤유적 뿐만 아니라 住居址나 貝塚(조개더미)등 생활유적 등이 많이 調査되면서 全南地方의 先史·古代文化의 윤곽의 맥락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에서 밝혀진 考古學的인 유적이거나 유물의 최근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先史文化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二.

I. 舊石器時代

우리나라에서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咸鏡, 平安, 京畿, 忠淸, 慶尙, 濟州 등 전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全南地方에서도 발견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이 遺蹟들은 동굴이나 강변의 대지(구릉)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구석기 전기부터 후기까지 전 시기에 걸쳐 사람이 살아왔음이 밝혀졌다.

全南地方에서는 舊石器時代의 打製石器가 1965년 L.Sample과 A.Mohr에 의해 순천 인근 북쪽 구릉에서 발견된 바 있으며⁶⁾, 그후 1984년 崔茂藏교수에 의해 谷城 立面 霽月里的 섬진강변 구릉에서 주먹도끼 등

3) 崔夢龍教授가 1972年 全南大學校에 오면서 부터 이 지방에서의 發掘調査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는 영산강 4개담(大草담, 潭陽담, 長城담, 光州담)의 支石墓와 羅州 寶山里 支石墓, 光州 松岩洞 住居址 등이 있다. 또 1975년에 全南地方에 산재된 考古·美術史에 관계된 遺蹟地名表를 출간하여 이 방면의 안내서가 되었다. 崔夢龍編『全南考古學地名表』全南每日出版局 1975.

①『榮山江 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報告書』全羅南道, 1976.

②『光州 松岩洞 住居址·忠孝洞 支石墓』全南大學校博物館, 1979.

③『羅州 寶山里 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羅州郡廳, 1977.

4) 全南大學校 博物館에서는 支石墓등 先史遺蹟을, 木浦大學 博物館에서는 支石墓, 住居址, 貝塚 등을, 國立光州博物館에서는 支石墓, 甕棺墓 등을 주로 發掘調査하여 그 전까지의 墳墓遺蹟에서 生活遺蹟으로까지의 調査 領域이 확대되었다.

5) 住岩담水沒地域의 調査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全南大學校 博物館 주관으로 전국 12개 大學 및 博物館이 참여하여 舊石器遺蹟, 支石墓, 住居址, 窯址 등을 발굴조사하였다. 『住岩담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I·II·III·IV·V·VI, 全南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

6) L.L.Sample A.Mohr, 「Progress Report on Archeological Research in the Republic of Korea」Arctic Anthropology, 2, I, 1965.

7) 崔茂藏, 「全南 谷城郡 立面 霽月里 出土 舊石器」『人文科學論叢』(建國大)18, 1986.

打製石器가⁷⁾, 또 谷城 玉果面 舟山里에서도 打製石器가 이선복교수에 의해 수습된 바 있다.⁸⁾ 그리고 최근 昇州郡 松光面 新坪里⁹⁾·德山里¹⁰⁾·牛山里¹¹⁾·和順 泗洙里 대전¹²⁾에서 打製石器와 細石器가 발굴 조사되어 全南地方에서의 舊石器時代 遺蹟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谷城 霽月里 유적은 섬진강변의 낮은 구릉상에서 맥석영계의 타제석기 63점이 수습되었는데 주먹도끼, 양극석핵, 첨두기 등이 세장석편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후기구석기시대말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昇州 新坪里 유적은 보성강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하안단구 잔존부가 가장 현저한 발달상을 보이고 있는 구릉에서 이암제 92점, 석영제 114점 등 207점의 타제석기가 발굴되었다. 이 유적의 연대는 전형적인 細石刃石核과 細石刃 등의 존재로 후기구석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細石刃 기술을 보인 유적이 2만년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동북아 내륙지방에서는 신석기시대 이후까지 보이지만 홍적세 퇴적층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후기구석기 말기의 시베리아유적의 연대를 비교해 그 상한을 1만5천년에서 1만3천년전으로 보고 있다.

昇州 牛山里 유적은 곡천마을 남쪽 산기슭의 밋밋한 경사면의 충적토가 형성된 곳에서 지석묘 발굴조사 과정에서 밀개, 굽개, 망치 및 몸돌 격지 등이 수습되어 발견된 유적이다. 이 유적은 표토층에서 바닥층까지 19개의 층이 나타나며 10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이 문화층은 중석기 문화층과 구석기 문화층으로 나누어진다. 중석기 문화층은 4지층과 9문화층이며 상당부분이 교란되어 있는데, 여기 출토된 석기는 꽃개, 굽개, 찌르개, 뚜르개 등 잔석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구석기 문화층은 크게 6개층이다. 석기의 석질은 석영, 규암, 뿔돌, 반암, 안산반암 등이 있으나 석기는 거의 대부분 석영계통이고 나머지는 석기 제작에 쓰인 공구역할을 한 것들이다. 이 구석기 문화층은 석질, 수법, 기능 등 여러면에서 공주 석장리 유적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연대는 중기구석기의 이른 시기부터 후기구석기 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잔석기출토로 중석기문화의 존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위에서 본 몇 유적에서 전남지방의 구석기유적은 대부분 후기에 속한 유적들로서 금강이남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구석기유적의 발굴조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구석기 문화 분포의 공간적 범위를 금강에서 보성강까지 크게 확대시켜 주었으며, 또 구석기문화의 시간적 분포의 폭도 넓혀 주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조사된 구석기유적은 후기구석기시대 말경에서 중석기시대에 걸친 유적 뿐이다. 그런데 중석기시대의 특징적 석기인 세석기(잔석기)의 존재는 한국고고학에서의 공백기로 남아 있던 시기를 메꾸어준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으며, 이러한 유적들은 우리나라의 중석기와 구석기 문화연구에

8) 1989年 12月경에 발굴 예정으로 있다.

9) 林炳泰·李鮮馥, 「新坪里 금평 舊石器」 『住岩담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V) 全南大學校 博物館·全羅南道, 1989.

10) 住岩담水沒地域 재연장 발굴조사로 1989년에 실시되었으며 현재 보고서는 인쇄중임.

11) 李隆助·禹鍾允·河文植, 「牛山里 곡천 先史遺蹟」註 5) V와 같은 책.

12) 支石墓 調査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1989年 2차에 걸쳐 발굴조사되었다.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II. 新石器時代

우리나라의 新石器時代는 서력기원전 5000년경부터 1000년경까지의 약 4000년이 이 시기에 해당하며, 이 시대의 유물이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有文土器)로 대표된다. 우리나라의 빗살무늬토기는 서북지방의 圓底形계통과 동북지방의 平底形계통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全南地方의 빗살무늬토기는 西南海岸地域의 貝塚遺蹟과 內陸地方의 生活遺蹟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수적으로 많지 않다. 貝塚遺蹟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新安 大黑山島, 小黒山島(可居島), 下苔島, 牛耳島, 육지의 인근 섬인 莞島 古今島¹³⁾, 新安 智島 汝矣島¹⁴⁾, 麗川 突山 松島¹⁵⁾, 해안가인 海南 白浦里¹⁶⁾, 光陽 鳥沙里 돈탁¹⁷⁾ 등이 있으며 최근 내륙인 寶城 竹山里¹⁸⁾와 昇州 大谷里¹⁹⁾ 강변 충적평지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어 신석기시대 유적이 전남지방 전 지역에서 발견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섬이나 해안변과 보성강유역에서만 발견되었으나 머지않아 영산강유역에서도 발견될 것으로 믿어진다.

新安 大黑山島 鎮里유적은 鎮里灣 南岸의 낮은 고개길 북쪽 경사면 해안 가까운 砂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試堀을 통하여 文化層이 확인되었다. 제1층은 褐色砂層(40-100cm)으로 교란 표토층이며, 제2층은 모래가 섞인 礫層(20-60cm)의 貝殼層으로 土器와 礫石器들이 출토된 文化層이며, 제3층은 褐色砂層(24-36cm)으로 土器片들이 섞여 나오며, 제3층밀에는 黑褐色砂層(약 1m)이고 그 아래는 混土 黃砂層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출토된 土器는 태토에 따라 砂質과 粘土質 그리고 滑石入土器로 크게 구분된다. 土器의 형태는 원저를 기본으로 하는 中西部地方의 토기와 비슷하고, 문양은 點列文, 刻線文 등이 주를 이루나 대부분 口緣部에만 무늬를 새겼다. 겹입술(二重口緣)토기는 남동해안지역의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²⁰⁾유적의 신석기 후기의 문화층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麗川 松島 유적은 突山邑 郡內里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 松島의 동쪽 사면의 해안과 인접된 곳에 위치해 있는데 國立光州博物館에서 1989년 11월에 발굴하였다. 이 유적의 층위는 경작층, 黑褐色腐蝕混土 貝層(유물포함층), 明褐色純貝層, 黑褐色粘土層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층에서 隆起帶文(덧띠무늬), 隆起線文(덧줄무늬), 복합된 문양구성을 보이는 토기편, 黑曜石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형태는 圓底

13) 金元龍·任孝宰, 『南海島嶼考古學』서울대 東亞文化研究叢書 I, 1968.

14) 崔盛洛, 「智島의 先史遺蹟」 『島嶼文化』5, 1987.

15) 趙現鍾, 「麗川 突山島 地表調査 報告」 『松菊里』II, 國立中央博物館, 1986.

16) 崔盛洛, 「海南 白浦灣一帶의 先史遺蹟」 『崔永禧先生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I, 一志社, 1987.

17) 張明洙, 「蟾津江下流의 貝塚文化」 『古文化』34, 1989.

18) 李榮文, 「寶城 竹山里 遺蹟의 性格」 『博物館紀要』4(壇國大中央博物館), 1988.

19) 住岩댁水沒地域 재연장 발굴조사과정에서 수습되었다.

20)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第三版 一志社, 1986. 『金海水佳里貝塚』釜山大學校 博物館, 1981.

또는 丸底모양의 바닥, 둥근바닥을 굽혀 만든 들린굽바닥 등 다양하다. 일부의 토기는 형태와 문양구성에서 서해안 빗살무늬토기의 문양요소가 보이고 있어 신석기시대 초기의 용기문토기에서 중기의 빗살무늬토기로 이행되어 가는 과도기적 유물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토기 이외에 골각기·돌도끼·석촉·흑요석제석기·밀개·격지·돌날·돌삽 등 석기류, 조개팔찌, 組合式漁具, 토제 방추차, 갈판, 갈돌 등이 있다. 이러한 松島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 말엽에서 중기 초엽에 해당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남동해안과 서남해안 패총의 신석기문화 전과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임이 밝혀졌다.²¹⁾

寶城 竹山里와 昇州 大谷里 유적은 보성강변에 형성된 충적평지에 위치해 있는데, 모두 발굴과정에서 빗살무늬 토기편이 수습되어 알려진 유적이다.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의 문양은 平行斜線文, 三角集線文, 押印文 등이 있으며, 태토는 砂質과 粘土質이 있으나 대부분 粘土質이다. 문양중에 太線文은 남해안 지역의 빗살무늬토기의 특징적인 요소이고 粘土質의 경우도 남해안지역 신석기말기 유적의 특징²²⁾이어서 양지역간의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유적이 慶南 내륙지방인 山淸 江樓里 유적²³⁾과 태토, 문양면에서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해안지역과 그 내륙지방의 신석기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겠다.

全南地方에서 발견된 新石器文化인 빗살무늬토기중 겹입술(二重口緣·大黑山島), 점토편토기(隆起文土器, 小黑山島·松島), 붉은간토기(紅陶·丹塗磨研土器, 下苔島·松島)등은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들의 특징적인 요소이고 또 寶城 竹山里 빗살무늬토기가 慶南의 남해안과 내륙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들과 같은 계통이어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 볼 때 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토기들 중 점토편토기는 江原 鰲山里²⁴⁾, 釜山 東三洞, 麗川 松島, 新安 小黑山島로 이어지는 東·南海岸地域의 新石器時代 遺蹟중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이며, 겹입술토기와 퇴화된 무늬는 늦은 시기의 특징적인 것이어서 지금까지 全南地方의 新石器文化는 서해안지역의 新石器文化가 남하한 후기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에서 그 상한을 전기나 중기까지도 올려볼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위의 빗살무늬토기 유적 이외에 新石器時代에 속한 유적으로는 羅州 多侍面 佳興里가 있다. 이 유적은 日本 廣島大學의 安田喜憲이 중심이 된 韓日合同自然環境史研究班이 濕原(늪지대)의 지표하 6m되는 층에서 花粉(꽃가루)을 검출하였다.²⁵⁾ 이層的의 年代는 土層的의 방사선 탄소연대 堆積速度를 감안하여 서력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이미 이 시기에 영산강유역에서 稻作(벼농사)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시기는 신석기시대의 말기에 해당된다. 이 佳興里 花粉資料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농경연구뿐만 아니라 華中·華南地方과의 文化的 接觸問題에 대한 자료라 하겠다.

21) 趙現鍾, 「全南麗川 松島 貝塚 發掘調査 概報」 博物館新聞 221號, 1990.1.4面.

22) 鄭澄元, 「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 研究 I」 『釜大史學』6집, 1982.

23) 趙由典, 「南江流域의 先史文化 研究 I」-山淸 江樓里 先史遺蹟의 性格- 『韓國考古學報』20, 1987.

24) 서울大博物館 『鰲山里遺蹟』 I·II·III, 1984, 1985, 1988.

25) 安田喜憲外, 『韓國における環境變遷史』(日本文部省海外學術調査中間報告), 1980.

Ⅲ. 靑銅器時代

靑銅器時代의 설정은 靑銅器를 사용한 시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無文土器를 사용한 시기로 보고, 이에 靑銅器·石劍 등의 遺物과 支石墓·石棺墓 등의 墓制를 관련시켜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靑銅器時代의 文化는 城砦都市의 發生, 支配階級の 形成, 分業·交易의 發展, 動物力이나 쟁기를 사용한 농경 그리고 文字의 發明 등 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시대적 특징을 구비하는 문화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靑銅器時代는 靑銅器의 종류에 따라 2기로 구분하는데 前期는 소위 琵琶形銅劍(遼寧式銅劍)을 비롯한 銅斧, 銅鏃, 단추모양 장식인 銅泡(銅鈕), 粗文鏡등이고 후기는 소위 細形銅劍(韓國式銅劍), 銅戈, 銅鏃, 細文鏡, 馬鐸, 車輿具, 기타 鈴附形銅器 등 儀器類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이다. 앞의 시기는 靑銅器時代 前期로 보며 뒤의 시기는 後期 즉, 初期鐵器時代로도 불리운 시기이다. 그러나 全南地方에서는 이 두 시기를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보다 함께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전남지방의 청동기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전남지방에서의 선사문화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문화형성으로 돌입하게 되고 어느 시기보다도 이 시대의 유적이 가장 많이 조사되고 연구된 시대이다. 이를 유적·유물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琵琶形銅劍은 高興 雲岱里²⁶⁾, 昇州 牛山里²⁷⁾, 寶城 德峙里²⁸⁾, 麗川市 鳳溪洞, 積良洞, 平呂洞의 支石墓²⁹⁾에서 13점이 발견되었다.

昇州 牛山里 출토 동검은 지석묘에서 두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비파형계통이다. 1점(8호 출토)은 아랫부분을, 다른 1점(38호 출토)은 윗부분을 각각 재가공한 이차전용품이다. 8호에서는 곡옥 2점, 소옥 6점과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麗川市 積良洞 支石墓 조사에서 동검 7점과 동모 1점등 8점의 청동유물이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지석묘에서 반제품이 발견된 것과는 달리 7호 지석묘에서 완형의 비파형동검 1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동검의 출토로 보아 支石墓와 琵琶形銅劍과의 관련성을 시사해 준 것이며, 지역적으로도 寶城江流域과 南海岸地域에서만 발견되고 있어 榮山江流域의 靑銅器文化와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銅鏃은 寶城 德峙里 支石墓에서 石劍 1점, 石鏃 29점과 함께 나온 예가 있으나 이 銅鏃은 비파형동검의 파손품을 재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비파형동모는 麗川 積良洞 지석묘발굴에서 비파형동검, 관옥 5점과 공반되어 발견되었으나 봉부쪽이 결실되었다.

26) 小泉顯夫, 『朝鮮古代遺蹟の遍覽』六興出版, 1986.

27) 宋正炫·李榮文, 「牛山里 내우 支石墓」註 5)Ⅱ와 같은 책.

28) 尹德香, 「德峙里 신기 支石墓」註 5)Ⅲ과 같은 책.

29) 현재 보고서 작성중이며, 이에 대한 개략적인 것으로는 제1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李榮文, 「麗川市 支石墓 發掘調査」에서 발표한 요지(1989)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초기에 해당하는 청동기의 발견은 전남지방의 지석묘문화가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와 연결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지석묘가 남방문화의 요소보다는 북방대륙문화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또 초기 청동기가 한반도내에서는 전남의 남해안지역이 가장 밀집분포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연구에 귀중한 학술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많은 연구 과제를 남겨 주었다고 하겠다.

細形銅劍을 비롯한 細文鏡, 銅戈, 銅鉞, 鈴具類 등 청동기가 일괄로 출토된 유적은 和順 大谷里³⁰⁾와 咸平 草浦里³¹⁾가 있고 이외에 靈岩 新燕里 출토³²⁾ 銅鉞·銅製劍把頭飾, 羅州 靑松里 출토³³⁾ 細形銅劍, 高興 小鹿島 출토³⁴⁾ 粗文鏡·石斧·石鏃, 咸平 月山里·長興 鶴松里 출토³⁵⁾ 銅戈, 康津 冶興里 출토³⁶⁾ 銅鉞, 傳靈岩 출토 細文鏡·銅鉞·細形銅劍 등이 알려져 있다. 和順 大谷里 유적은 영산강 상류인 砥石川을 향해 뻗은 낮은 구릉상에서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은 細形銅劍 3점, 細文鏡 2점, 銅斧 1점, 八珠鈴 2점, 雙珠鈴 2점, 銅製削具 1점 등 11점이다. 咸平 草浦里 유적은 영산강의 지류인 羅山川을 향해 뻗은 낮은 구릉의 사면에서 1987년 길 확장 공사하다가 발견되어 알려진 것이나 다행히 그 일부를 긴급수습 발굴하여 청동유물의 배치상태나 부장위치의 일부를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동기 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겠다. 이 유적에서는 細形銅劍 4점, 銅戈 1점, 銅鉞 2점, 中國式銅劍 1점, 銅斧 1점, 銅鑿 1점, 銅鉞 2점, 細文鏡 3점, 竿頭鈴 2점, 雙頭鈴 2점, 柄附銅鈴 1점, 曲玉 2점, 砥石 2점 등 26점이 출토되었다. 이 두 유적은 積石石棺墓계통이며, 그 연대는 大谷里를 B.C 5~4세 기로, 草浦里를 B.C 2세기초나 전반경으로 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 무덤의 피장자의 신분은 銅鈴具類가 사만(原始宗教主宰者)의 巫具로 추정되고 있으며, 武器類는 상당한 권력의 상징으로 보여져 儀器와 武器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強制力을 구사하는 支配階級의 最高權力者로 祭政을 관장하는 신분을 소유하였다고 하겠다.

이상의 두 유적의 발견으로 영산강유역이 우리나라 청동기 밀집 출토지역의 하나임이 밝혀졌다. 또한 전남지방에서만 국한시켜 본다면 영산강유역은 세형동검 등 후기청동유물이, 보성강과 남해안지역은 비파형동검등 초기청동유물이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되어 앞으로 두 문화간의 상호비교 연구에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동기를 직접 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鎔范(주물틀, 거푸집)이 靈岩 月出山 주변인 犢川里 또는 東鳩林里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이 용범은 현재 송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二枚一組의 雙合范으로 주물을 녹여부어 청동기를 만드는 틀이다. 이는 청동기가 실제 제작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30) 趙由典, 「全南 和順 靑銅遺物一括 出土遺蹟」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31) 李健茂·徐聲勳, 『咸平 草浦里 遺蹟』 國立光州博物館, 1988.

32) 金元龍, 「靈岩 新燕里出土 銅斧·銅製劍把頭飾」 『考古美術』 1券 4號, 1960.

33) 崔夢龍, 「榮山江流域에서 새로이 發見된 先史遺物」 『湖南文化研究』 제8집(全南大), 1976.

34)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養德社, 1947.

35) 崔夢龍 註 33)과 같은 논문.

36) 徐聲勳·李榮文, 『康津 永福里 支石墓 發掘調査 報告書』 國立光州博物館, 1983.

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또 영암일대가 청동기시대 문화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鎔范은 滑石製로서 細形銅劍鎔范 1雙, 細形銅劍·銅戈鎔范 1雙, 銅斧·銅鑿鎔范, 扇形銅斧鎔范, 銅斧鎔范, 銅斧·銅鑿鎔范, 銅鉞·銅劍鎔范, 銅劍·銅鉞鎔范 등 모두 6雙으로 12점과 한쪽만 남아 있는 1점, 그리고 한쪽만의 작은 파편 1점 등 14점이다.³⁷⁾ 이는 모두 15종의 청동기를 주조하였던 용법이며, 15종 외에도 9종의 청동기를 주조하기 위한 틀에 새기다가 만 흔적이 한쪽면에만 남아있다.

다음은 住居址가 있다. 전남지방에서 조사 확인된 주거지는 光州 松岩洞³⁸⁾, 靈岩 長川里³⁹⁾, 昇州 大谷里⁴⁰⁾, 牛山里⁴¹⁾가 있으며 아직 발굴이 안된 상태이나 주거지가 노출된 곳이 光州 雲岩洞⁴²⁾, 長興 巾山里⁴³⁾ 등이고 이외에 住居址로 추정되는 遺物散布地는 수십 곳에 이르고 있다.

光州 松岩洞에서는 원형 1기, 말각방형 1기 등 2기가, 靈岩 長川里에서는 원형·타원형 11기, 高床遺構 1기가, 昇州 大谷里에서는 원형 15기, 장방형계 47기, 소형유구 60기가 발굴되었다. 특히 昇州 大谷里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최대규모의 주거지 발굴이어서 주거지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발굴조사된 주거지는 땅을 20~40cm정도 파고 들어간 움집이며, 그 형태는 직경이 대개 4~6m의 원형이나 타원형의 주거지로 중앙에 기둥구멍 2개나 4개가 있는 원추형모양의 움집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忠南 서산군 해미, 扶餘 松菊里⁴⁴⁾, 慶南 大也里⁴⁵⁾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忠南·全南 등 西海岸地域에 집중분포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圓形住居址는 우리나라 靑銅器時代 일반적인 움집(堅穴住居址)과는 그 형태나 내부시설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전남을 비롯한 西海岸地域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다른 지방과는 다른 하나의 문화적인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주거지 이외의 유적으로는 支石墓, 石棺墓 등의 무덤유적이 있다.

지석묘는 일만여기 이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타 지역과는 매우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남지방의 청동기시대를 지석묘 사회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⁴⁶⁾ 지석묘의 형식은 卓子式(北方式), 基盤

37) 林炳泰, 「靈岩出土 靑銅器鎔范에 대하여」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考古學篇.

38) 崔夢龍 註 3) - ②와 같은 책.

39) 崔盛洛, 『靈岩 長川里 住居址』 I·II, 木浦大博物館 1986, 1987.

40) 『住居址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VI, 全南大學校博物館, 1989.

41) 李隆助外, 註 11)과 같은 논문.

42) 李榮文, 『全南어린대公園 地表調查報告書』 鄉土文化開發協議會, 1981.

43) 崔夢龍·李榮文, 「長興 巾山里 無文土器遺蹟」 考古美術 153號, 1982.

44) 『松菊里』 I·II·III, 國立中央博物館, 1979, 1986, 1987.

45) 慶南 居昌 大也里와 壬佛里 등 합천댐수몰지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林孝澤外, 「大也里住居址 I」 東義大博物館 1988.

46) ① 崔夢龍, 「全南地方 所在 支石墓의 型式과 分類」 『歷史學報』 78, 1978.

② 崔夢龍,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의 發生」 『韓國史研究』 35, 1981.

③ 崔夢龍,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의 編年」 『震檀學報』 53, 54合輯, 1982.

④ 李榮文, 『全南地方 支石墓 研究』 檀國大碩士學位論文 1987.

⑤ 李榮文, 「全南地方 支石墓의 性格」 『韓國考古學報』 20집, 1987.

式(南方式), 無支石式(蓋石式)으로 분류되며, 下部構造에 따라 세분하기도 한다. 卓子式의 支石墓는 羅州 萬峰里·新楓里·松村里⁴⁷⁾ 등 영산강유역에만 보이며, 碁盤式과 無支石式은 전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墓室에서 石棺形은 榮山江流域에, 石槨形은 寶城江流域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출토유물은 영산강유역에서는 극히 드물며, 寶城江流域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영산강유역에서는 細形銅劍片, 石斧, 無文土器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매우 빈약한 유물이고 또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寶城江流域은 琵琶形銅劍, 銅鏃, 石劍·石鏃 등의 다양한 石器類, 曲玉, 管玉 등 裝身具類 등 유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支石墓에서 부장품이 발견되고 있다.⁴⁸⁾

최근에 麗水半島의 支石墓 발굴에서 9점의 비파형동검을 비롯 약 400여점에 가까운 玉이 출토되었으며, 또 麗水 五林洞 支石墓 상석 측면에서는 유병식석검, 인물 등의 암각화가 발견되어 우리나라 지석묘 연구에 있어 南海岸인 麗水半島가 매우 중요한 지역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全南地方에 분포된 支石墓들은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인 분포양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支石墓 사회에 있어 각각의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支石墓築造集團과 그 다음에 형성된 馬韓小國들과 지역적으로 일치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나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지석묘사회에서 계승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겠다.⁴⁹⁾

전남지방에 분포된 지석묘는 형식적으로 다양하고 부장유물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밀집된 분포상황등을 보여주고 있어, 전남지방이 우리나라 지석묘 연구에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된다.

石棺墓는 和順 大谷里와 咸平 草浦里에서 각각 발견된 바 있는데 모두 積石을 한 石棺墓이다. 이곳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같이 細形銅劍을 비롯한 청동기가 일괄로 출토되고 있어 영산강유역에서도 忠淸·慶尙지역의 청동기 분포지에 못지 않는 청동기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제시해 주었다고 하겠다.

전남지방의 청동기시대에 속한 유물은 石器類, 土器類, 靑銅器類, 裝身具類로 크게 나눌 수 있다.

石器類는 多種多樣하여 일부의 석기들은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수렵용으로는 石鏃이 원거리에, 石槍이 중거리에, 石劍이 단거리에 사용된 무기들이고 일상생활에 쓰인 것으로는 곡식의 이삭을 따는 石刀, 농경구나 벌채용의 有溝石斧(홈자귀)·石斧(돌도끼), 석기를 만들거나 필요시 무딘 석기를 갈 수 있는 砥石(숫돌), 곡식이나 열매를 빻는다거나 갈 수 있는 礪石(맷돌의 원시상태, 갈판·갈돌) 등이 있으며, 고기잡이에 쓰인 漁網錘(그물추), 옷을 해입었음을 증명해 주는 紡錘車(가락바퀴)가 있다.

石劍은 有柄式(자루식)과 有莖式(자루가 없이 따로 손잡이를 달 수 있는 형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석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석묘에서 출토된 石劍은 有柄式·有莖式 모두 출토되고 있으나 영산강유

47) 李榮文·崔仁善, 「羅州地方의 先史遺蹟」 『羅州郡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1985.

48) 李榮文, 註 46)-④⑤ 및 「全南地方 支石墓 出土遺物」 제12회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1988.

49) 李榮文, 「全南地方 馬韓小國 比定地에 대한 考古學的인 檢計」 제2회 한국상고사학회 발표요지, 1988 및 『鄉土文化』 제10집 鄉土文化開發協議會, 1989.

역의 지석묘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고 주로 寶城江과 南海岸地域의 지석묘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고 있다. 석검 중 莖部(슴베)가 길고 가는 형식이 咸平 月峰里와 潭陽 齊月里⁵⁰⁾에서 발견된 바 있는데 이러한 石劍은 平安·黃海地方의 角形土器(뿔이형토기)유적의 특징적인 석검이다.⁵¹⁾ 有莖式石劍중 넓고 짧은 莖部가 달린 형식이 寶城江流域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으로 이 지역의 특징적인 石劍이다.

石鏃은 有莖式과 三角形이 있는데, 有莖式 중 세장한 것은 支石墓의 부장품으로 발견되고 있고 실용적인 有莖式은 지석묘 주변이나 주거지등에서 발견된다. 三角形은 小鹿島와 海南 郡谷里 貝塚⁵²⁾에서 출토된 바 있다. 石斧는 有溝石斧, 有段石斧, 有孔石斧, 蛤刃石斧(양날돌도끼), 單刃石斧(대패날, 돌끌)등 다양하다. 이 石斧類는 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有段有孔石斧는 靈岩 長川里 住居址⁵³⁾에서 有溝有孔石斧는 寶城 竹山里⁵⁴⁾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石斧는 中國 華南地方,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環太平洋地域에서도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靑銅器時代의 文化가 北方文化와 함께 南方文化의 要素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石刀(돌칼)는 三角形과 半月形이 있으나 三角形이 훨씬 많다. 石刀는 농경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三角形石刀는 有溝石斧와 함께 한강이남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유물로 礮石이 있다. 礮石은 住居址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나 寶城 竹山里 支石墓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이는 그 사용이 水田이나 陸田의 농경방법을 알고 있던 당시의 식생활을 짐작케 해준다. 漁網錘는 圓筒形, 圓盤形, 土球形 그리고 넷돌 양쪽을 깬 것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식생활이 고기잡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土器는 無文土器(민무늬토기), 紅陶(붉은간토기), 黑陶(흑색간토기), 彩文土器(가지문토기) 등이 있다. 무문토기는 住居址, 支石墓에서 출토된다. 무문토기중 孔列土器(구멍무늬토기)와 口緣 刻線土器(골아가리토기)는 우리나라 東北系(咸鏡地方)土器로 한강유역과 경상도지방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전남지방에서는 보성강유역에서 발견된 바 있으나 영산강유역에는 주로 소위 松菊形土器와 深鉢形이 출토되고 있어 양 지역간의 토기문화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紅陶는 주거지나 지석묘에서 출토되고 완형이 지석묘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된 바 있으며, 彩文土器도 和順 獐鶴里 支石墓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된 적이 있다. 黑陶는 康津 永福里 支石墓 주위에서 출토된 것이 유일한 예이다.⁵⁵⁾

靑銅器類는 寶城江과 南海岸地域의 지석묘에서 출토된 琵琶形銅劍 13점과 琵琶形銅錘 1점, 銅鏃 1점이 있고, 영산강유역의 石棺墓에서 細形銅劍을 비롯한 다양한 청동기가 발견되고 있다.

裝身具類로는 曲玉, 管玉, 小玉 등 玉類가 있다. 曲玉은 昇州 牛山里, 麗川市 平呂洞 支石墓와 咸平 草

50) 崔夢龍, 「潭陽 齊月里의 石器文化」 『湖南文化研究』5, 1973.

51) 韓永熙, 「角形土器考」 『韓國考古學報』14, 15합집, 1983.

52) 崔盛洛, 『海南 郡谷里 貝塚』Ⅰ·Ⅱ, 木浦大學博物館 1987, 1988.

53) 崔盛洛, 註 39)와 같은 책.

54) 李榮文, 註 18)과 같은 논문.

55) 徐聲勳·李榮文, 註 36)과 같은 책.

浦里 石棺墓에서 각 1쌍씩 발견되었으며, 앞의 것은 琵琶形銅劍과 뒤의 것은 細形銅劍등 靑銅器 일괄품과 함께 출토되었다. 管玉과 小玉은 寶城江과 南海岸地域의 支石墓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麗川市 平呂洞 支石墓에서는 曲玉 2점, 管玉 157점, 小玉 216점이 무더기로 나온 바 있다.

이상에서 본 전남지방의 청동기사회는 지식묘를 주요제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 와서는 일부 支配階級들에 의해 石棺墓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인 문화를 보면 寶城江流域은 琵琶形銅劍·孔列土器·支石墓의 厚葬風習에서 慶南 등 南海岸地域과 榮山江流域은 細形銅劍, 松菊里形土器·支石墓의 薄葬風習에서 忠南 등 西海岸地域의 문화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靑銅器時代 文化의 양상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전남지방 청동기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V. 鐵器時代(0~300 A.D)

鐵器時代는 靑銅器時代에 이어 나타난 時代로 서력기원전후에서 기원후 300년경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고고학상에서는 初期鐵器時代와 鐵器時代로 구분하고 있는데 初期鐵器時代는 靑銅器時代 後期(B.C. 300~0)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새로이 鐵器가 유입된다. 이 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鐵製品이 일부 지역에 들어오나 일반적으로는 細形銅劍·細文鏡등 靑銅器와 粘土帶土器, 黑陶 등의 土器, 土壙墓와 甕棺墓등의 墓制가 새로이 등장하고 靑銅器가 부장된 石棺墓 등이 사용된 시기이다.

鐵器時代는 原三國時代이며, 고고학상으로는 金海時代로도 부르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는 三國時代 前期 또는 三韓時代(全南地方은 馬韓時代)인데 역사학자들은 三韓時代, 部族國家時代, 城邑國家時代로 명명하고 있어 이 시대의 명칭을 학자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다.

鐵器時代는 靑銅器와 支石墓가 거의 消滅하는 한편 鐵생산의 보급으로 鐵器와 稻作이 발전하고 無文土器에 이은 소위 金海式土器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는 본격적인 鐵製農具와 工具로 생산력의 급증과 농경술의 발전으로 인구의 증가, 주거지의 확대, 교역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또 토기제작에 있어서 새로운 窯法 즉 露天窯에서 登窯에로의 대체 또는 廻轉板의 사용으로 器種이 다양해지고 1000°C이상의 고열로 구운 단단한 土器들이 대량 생산되었다. 이러한 文化的 배경으로 鐵製武器가 사용되고 농업생산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支配集團勢力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력간의 연합 또는 흡수로 古代國家에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全南地方에서 발견된 鐵器時代의 유적으로는 光山區 新昌里(現 山月洞)의 甕棺墓地⁵⁶⁾, 海南 郡谷里의 貝塚⁵⁷⁾, 昇州 洛水里·大谷里의 住居址⁵⁸⁾가 대표적이다. 光山區 新昌里 甕棺墓地는 1964년 서울대학교에서 발굴하였는데 무문토기를 사용한 옹관과 철편, 석부 등이 발견되었다. 이 옹관들은 소형이어서 영산강유역에 살던 土着農耕人들의 早死한 아이들의 무덤인 乳兒用 共同墓地로 보이나 오늘날까지 이어져

56) 金元龍, 註 2)~③과 같은 책.

57) 崔盛洛, 註 52)와 같은 책.

58) 註 40)과 같은 책.

내려오는 二次葬風習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甕棺자체가 외래의 것이 아니라 無文土器 계통의 在來式 土器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이는 甕棺의 質과 形態만 바뀌어 馬韓·百濟時代에 걸쳐 榮山江流域에서 크게 성행하였던 甕棺墓로 계승발전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傳統은 榮山江流域의 肥沃한 農耕地를 바탕으로 形成된 集團들이 외부로부터의 文化를 수용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甕棺墓文化를 創出하였던 것이다. 이는 百濟·新羅·高句麗 등지에 분포된 古墳들과 封墳의 규모나 형태에서 또 다른 하나의 古墳文化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 것이라 하겠다.

海南 郡谷里 貝塚은 길이 300m, 폭 200m에 이르는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木浦大學博物館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B.C. 3세기에서 A.D. 4세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밝혀졌고, 이 貝塚으로 보아 적어도 전남지방에 B.C. 1세기 이후에는 鐵器文化가 유입되었고, 또 다양한 유물이 제작되고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郡谷里 貝塚에서 출토된 유물은 土器에는 硬質無文土器, 粘土帶土器, 打捺文土器(金海式土器)등이 있고 土製品은 紡錘車, 漁網錘, 구슬, 曲玉이 있으며, 骨角器는 骨鏃, 骨針과 뿔로 된 칼자루가 있다. 鐵製品은 낚시바늘, 刀子(칼), 鐵斧(철도끼)가 있고 裝身具는 水晶, 管玉, 貝輪, 牙製曲玉, 骨製머리장식이 있다. 石器類는 石鏃, 三角形石刀, 숫돌, 끌, 敲石, 흙이 파진 돌이 있다. 출토품 중 가장 중요한 貨泉(中國 新나라 화폐, A.D. 14~40년에 발행)이 最下層에서 나와 이 유적의 상한연대를 시사해준다. 조사된 주거지는 모가 둥근 抹角方形 움집이며, 窯址는 郡谷里 貝塚에서 발견된 土器의 제작이나 편년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郡谷里 貝塚은 우리나라 鐵器時代의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로 지금까지 조사된 경상도지방이나 南原 細田里 住居址⁵⁹⁾, 昇州 洛水里 住居址, 濟州 郭支貝塚⁶⁰⁾등과의 상호연관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또 卜骨, 骨製뒤꽂이, 貨泉, 土製曲玉, 土器 및 鐵器類 등은 中國이나 日本의 文化와의 비교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貨泉은 中國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문화요소와 함께 전파해 들어왔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昇州 洛水里는 寶城江邊의 丘陵에 15여기의 住居址가 밀집되어 있고 大谷里는 靑銅器時代에서 鐵器時代에 걸쳐 대규모의 집단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이 時代의 주거지는 4~5m 크기의 모가 둥근 抹角方形의 수혈주거지이며 打捺文土器, 鐵製品, 玉類 등 다양하게 다량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본 이 시기의 유적은 馬韓時代에 해당되며, 大形 甕棺墓 築造이전의 土着勢力集團의 文化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三.

全南地方은 他地方에 비해 비교적 늦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지표조사등을 통해 先史, 古代의 귀중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음이 밝혀졌고 그중 先史時代의 支石墓와 古代의 甕棺墳은

59) 尹德香, 「南原 細田里遺蹟 地表收拾遺物報告」 『全羅文化論叢』1, 1986.

60) 李白圭·李清圭 『郭支貝塚』濟州大博物館, 1985.

이 지방의 특색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발굴조사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으며, 각 時代의 文化的인 變異, 문화의 綜合相은 대체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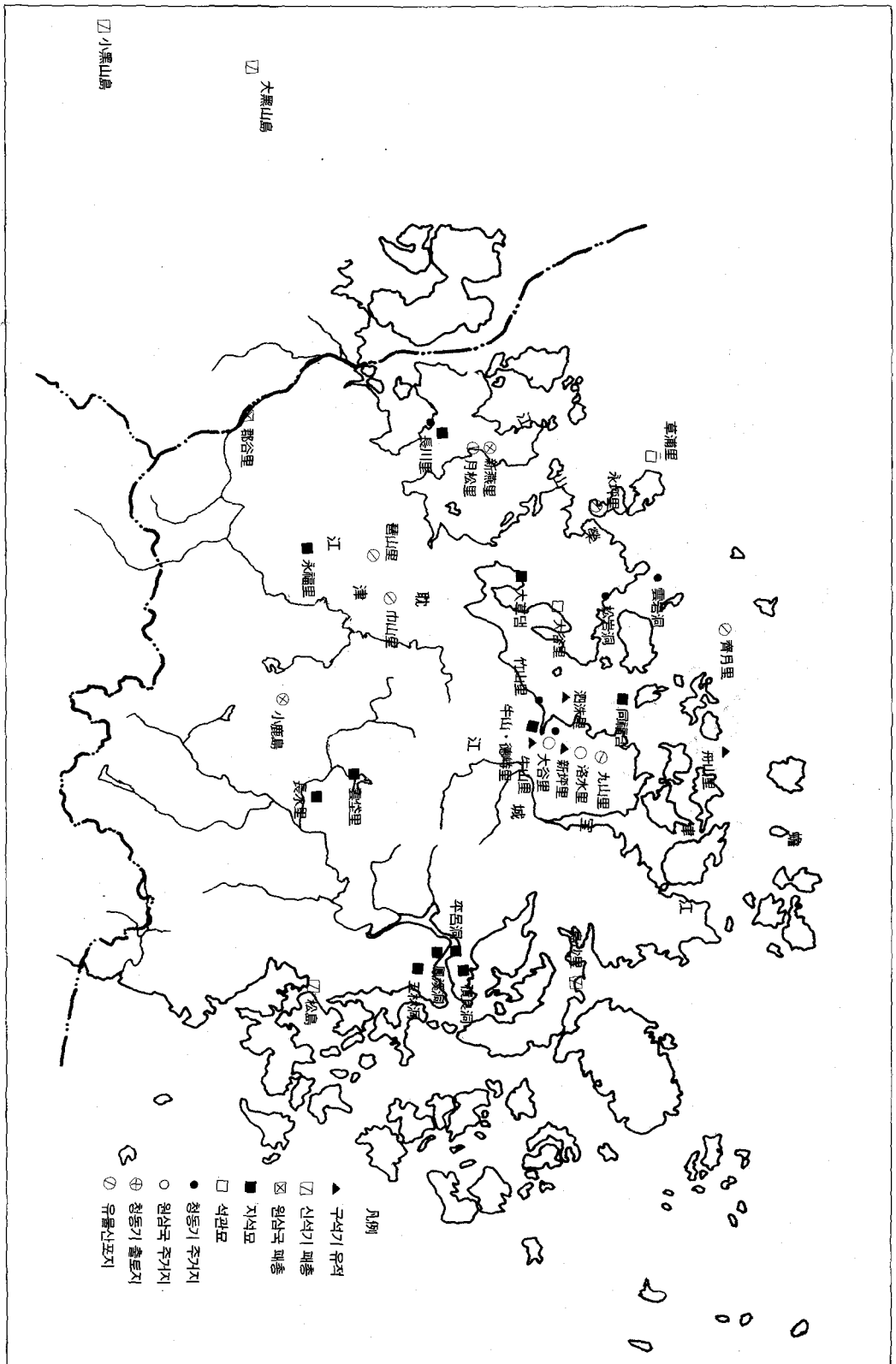
舊石器時代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주암댐 수몰지역에서 후기구석기와 중석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全南地方에도 舊石器遺蹟의 존재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석회암지대에서의 동굴유적 발견이 아쉬운 실정이다. 또 시기적으로도 中期나 前期까지 올라가는 遺蹟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보며 구석기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학자들의 연구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新石器時代는 지금까지 西·南海岸 島嶼地域의 貝塚에서 발견되었으나 최근 寶城 竹山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됨으로 해서 全南 內陸地方에서 新石器時代 유적의 발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지역이 보성강변이어서 또 다른 유적의 발견뿐 아니라 영산강유역에서의 발견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 時代는 유적이 지표의 堆積에 의해 지하 깊숙히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靑銅器時代는 비교적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把握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 당시 文化傳播나 生活相이 復元되어야 하며, 住居址와 支石墓와의 관계, 支石墓 社會와 馬韓社會와의 연결문제, 靑銅器 製作地의 발견과 靑銅遺物을 통한 交易관계, 支石墓 築造集團간의 상호관계나 先後관계, 支石墓의 文化史의인 성격과 意義의 규명, 타지역과의 관련성 등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鐵器時代는 최근 주암댐에서의 주거지와 海南 郡谷里 貝塚의 발굴조사로 지금까지 공백상태인 이 시대의 문화상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遺蹟과 遺物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적·유물을 통한 타지역 또는 중국·일본등과의 관계를 밝혀야 하고, 馬韓文化와 百濟文化의 관계나 시기적인 구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馬韓文化의 지역적인 特色을 찾아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이 지역에서의 古代國家形成 뿐아니라 韓國 古代史에 있어서의 위치설정이 가능하다 하겠다.

全南地方 重要 先史遺蹟



년도	구석기	패총		청동기시대분묘		주거지		옹관묘	석실분	토광묘	계
		신석기	원삼국	지석묘	석관묘	청동기	원삼국				
1917								2			2
1938								2	1		3
1939								1			1
1960								1			1
1963								1			1
1965				2							2
1967		1		2				1			4
1971					1						1
1975				7				(1)		1	8
1977				1		2					3
1978				1					1		2
1981				3				1			4
1982				1						1	2
1984				3		1		1			5
1985						1		1			2
1986			1	10		2	2	1	1		17
1987	2		1	12	1	2	3				21
1988				1			1	(1)		1	3
1989	4	1		5		3	5	(1)		1	19
계	6	2	2	48	2	11	11	12	3	4	101

※ 숫자는 발굴지역 수입. ()은 토광묘와 공존된 것임.

(표 1) 전남지방 고고학관련 발굴 통계표

※全南地方 先史遺蹟 發掘報告書 目錄

- 金元龍, 『新昌里 甕棺墓地』서울大 考古人類學叢刊 第1冊, 1964.
- 金元龍·任孝宰, 『南海島嶼考古學』서울大 東亞文化研究叢書1, 1968.
- 金載元·尹武炳, 『韓國支石墓研究』國立博物館, 1967.
- 全羅南道, 『榮山江水沒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書』, 1976.
- 徐聲勳·李榮文, 『康津 永福里 支石墓 發掘調查 報告書』國立光州博物館, 1983.
- 徐聲勳·成洛俊, 『高興 長水堤 支石墓 調查』國立光州博物館, 1984.
- 李健茂·徐聲勳, 『咸平 草浦里 遺蹟』國立光州博物館, 1988.
- 趙由典, 「全南 和順 青銅遺物一括出土遺蹟」, 『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1984.
- 崔夢龍, 『羅州 寶山里 支石墓 發掘調查 報告書』羅州郡廳, 1977.
- 崔夢龍, 『光州 松岩洞 住居址·忠孝洞 支石墓』全南大博物館, 1979.
- 崔夢龍, 李榮文·趙現鍾, 『同福洞 水沒地區 支石墓 發掘調查 報告書』全南大博物館, 1982.
- 崔盛洛, 『靈岩 青龍里·長川里 支石墓群』木浦大博物館, 1984.
- 崔盛洛, 『靈岩 長川里 住居址』I·II, 木浦大博物館, 1986, 1987.
- 崔盛洛, 『海南 郡谷里 貝塚』I·II·III, 木浦大學博物館, 1987, 1988, 1989.
- 全南大學校博物館, 『住岩洞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查報告書』I·II·III·IV·V·VI, 1987, 1988, 1989.